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15



Contents

※ 2026.1.29.(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1.22.~2026.01.28.)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중기부·기후부·산업부, '찾아가는 합동설명회' 개최 (2026.01.28)	1
– 이재명 정부, 신규 원전 2기 건설 포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결정 (2026.01.26)	1
– 한국원자력학회, 2050 탄소중립 위해 신규 원전 20기 추가 건설 필요 주장 (2026.01.24)	2
– 히트펌프, 2050년까지 난방 수요 55% 담당 전망 (2026.01.22)	2
– 강원도, 전기차 7838대 보급 추진 (2026.01.28)	3
– 대구시,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연중 모집 (2026.01.28)	3
– 구미시, 첨단산업·탄소중립 투트랙 산업도시 전략 추진 (2026.01.28)	4
– 인천시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2026.01.28)	4
– 세종시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 솔선수범 촉구 (2026.01.28)	5
– 달서구, 탄소중립 녹색도시 전환으로 구민 91.1%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응답 (2026.01.28)	5
– 창원시, 2026년 탄소중립 3대 분야 2176억원 투입 (2026.01.28)	6
– 예천군, 상반기 전기차 152대 보급 추진 (2026.01.28)	6
– 영월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16대 추가 확대 설치 (2026.01.28)	7
– 울산 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세미나 개최 (2026.01.27)	7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태안발전본부 방문 탄소중립 실현 현장 점검 (2026.01.28)	8

-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결과보고서 발간 (2026.01.27)	8
- 창원시, 2026년 '탄소중립 실행 원년' 선포 (2026.01.27)	9
- 충북·강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2026.01.27)	9
- 충남도, 수소버스 구매 시 최대 4억6000만원 지원 (2026.01.27)	9
- 천안시, 탄소중립 이행점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6.01.27)	10
- 보령 폐광지역, '제3회 겨울방학 석탄 에너지전환 축제' 개최 (2026.01.27)	10
- 제주도, 제4기 공공건축가 38명 확정...탄소중립 건축 본격 추진 (2026.01.27)	11
- 여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로 기후변화 선도 (2026.01.27)	11
- 광주시민 탄소중립 피로감 확산...'인식과 실천의 괴리' 심화 (2026.01.26)	12
- 제주도, 농업분야 RE100 감귤 전국 최초 출시 (2026.01.26)	12
- 광주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 개최 (2026.01.23)	13
- 성북구, '일회용 컵 제로' 캠페인 전개 (2026.01.23)	13
- 청주시, 무공해차 5158대 지원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2026.01.26)	14
- 제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대응전략 워크숍 개최 (2026.01.25)	14
- 충남도, 7조원 공공건축 사업으로 탄소중립 선도 (2026.01.22)	15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중립 달성과 지역 역할 특강 개최 (2026.01.22)	15
- 충북도 에너지정책팀장 기고문 - '햇빛소득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제안 (2026.01.28) ..	16
- 오영훈 제주지사, 日 하카타항 시찰...스마트·탄소중립 항만 구축 추진 (2026.01.25) ..	16

■ AI 분야 17

- 기후부,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승인 평가 추진...AI로 화학안전체계 강화 (2026.01.27) ·	17
- 하정우 청와대 AI수석 "이재명 정부, 처음부터 에너지믹스...탈원전이었던 적 없어"	

(2026.01.27)	17
- 이재명 정부의 탈 '탈원전'...AI발 전력대란에 신규 원전 2기 건설 (2026.01.26)	18
- 배경훈 부총리 "SK AI 데이터센터...인허가 일괄 처리 등 적극 지원" (2026.01.23)	18
- 울산시의회, 'AI수도 울산' 비전 실현 현장 점검 (2026.01.28)	19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20

▪ 탄소중립 분야 20

- 한국동서발전, '탄소중립·환경보전 공동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2026.01.23)	20
-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 신규 LNG 발전소, 탄소중립과 충돌 우려 (2026.01.23)	20
- 경북연구원, 동해안 심해 블루카본을 국가 탄소중립 핵심 해법으로 제시 (2026.01.25)	21

▪ AI 분야 21

- 한국수출입은행, AI 대전환에 22조원 투입... 'AX 특별프로그램' 출시 (2026.01.23)	21
- 원자력학회 "신규 원전 추가 없이 탄소중립·AI 전력수요 대응 불가" (2026.01.23)	22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23

▪ 탄소중립 분야 23

- 여수산단 탄소중립 협력모델 모색 토론회 개최 (2026.01.28)	23
- 하이엠솔루텍, LG시스템에어컨 폐냉매 17톤 회수...ESG 경영 강화 (2026.01.28)	24

- 삼성중공업·아모지·빈센, 암모니아-수소연료전지 무탄소 동력 시스템 공동개발 (2026.01.28) .. 24
- 전남개발공사-한전KPS,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협약 체결 (2026.01.26) 25
- 현대자동차, UCL과 탄소중립 원천기술 공동 연구 착수 (2026.01.26) 25
- HD건설기계, CDP 기후변화 대응 'A등급' 획득...2050 탄소중립 추진 (2026.01.26) 26
- 푸디스트, 스타필드시티 부천시 '잔반제로' 탄소중립 모델 운영 (2026.01.22) 26
- 인천 탄소중립 마을 너머 협동조합, 우유팩·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실험 (2026.01.25) 27

■ AI 분야 27

- 아마존, AI로 효율화·부진사업정리로 1만6000명 감원 (2026.01.28) 27
- 당근, AI로 중고 화장품·수제 두쫂꾸 거래금지 품목 판매 단속 (2026.01.28) 28
- SK하이닉스, MS AI칩 '마이야 200'에 HBM 단독 공급 (2026.01.27) 28
- MS, 자체 AI 칩 '마이야 200' 공개...엔비디아 의존도 낮출까 (2026.01.27) 29
- CJ프레시웨이, 식자재 플랫폼 'AI 주문 에이전트' 도입 (2026.01.27) 29
- 손정의, 오픈AI에 "43조 더"...100조 베팅 나서나 (2026.01.28) 30
- 현대차, 시총 100조 시대...피지컬 AI 기대감에 몸값 '고공행진' (2026.01.23) 31
- 데이원컴퍼니-업스테이지, AI 특화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2026.01.26) 31
- '지구 종말 시계' 자정 85초 전..."핵 위협에 AI 확산 겹쳐" (2026.01.28) 32
- 이제는 전문직도? 회계사·변호사도 신입 대신 AI 쓴다 (2026.01.27) 32
- 막내는 어디로 갔나...인공지능이 끊어버린 '취업 사다리' (2026.01.27) 33
- 물가 폭탄·AI 공포에 美 Z세대도 '무지출 챌린지' (2026.01.22) 3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중기부·기후부·산업부, '찾아가는 합동설명회' 개최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함께 각 부처의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지원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며, 기업들이 개별 부처 사업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방침 -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3개 부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총 23개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 예정 - 수도권(서울·1월 29일)을 시작으로 호남권(여수·2월 4일), 영남권(울산·2월 5일) 등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지원사업 관련 1대 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실시해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지원
	<p>□ 이재명 정부, 신규 원전 2기 건설 포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결정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지 공모는 상반기 내 시작하고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함 - AI·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2040년 석탄 발전 전면 중단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는 '투 트랙' 체제로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 정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이 신규 원전 추진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찬성 의사를 밝혔고, 80% 이상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공론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p>
	<p>□ 한국원자력학회, 2050 탄소중립 위해 신규 원전 20기 추가 건설 필요 주장 (2026.01.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학회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까지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원전 20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2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계획된 원전 2기와 SMR 1기만으로는 전력 수급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 폭증하는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넘어선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2040년 이후 전력수급 공백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 - 학회 분석에 따르면 2050년 발전 요구량을 143.6GWy로 가정하고 평균 이용률 85%를 적용할 경우, 대형 원전은 2031년부터 2042년까지 매년 평균 1.67기씩 착공해야 하고, SMR은 2029년부터 2045년까지 매년 0.71기씩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
	<p>□ 히트펌프, 2050년까지 난방 수요 55% 담당 전망 (2026.0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 넷제로 로드맵'에서 2050년까지 난방 수요의 약 55%를 히트펌프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히트펌프 설치 대수는 2020년 1억8000만대에서 2030년 6억대, 2050년 18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 주택, 취약 계층 거주 사회복지시설, 화훼 등 시설 재배 농가에 우선 보급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제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나, 가격 부담과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과제가 존재
지자체	<p>□ 강원도, 전기차 7838대 보급 추진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총 6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7838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도내 대기질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 - 올해 보급 목표인 7838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보급실적인 4305대와 비교해 82%나 증가한 수치이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6434대, 전기화물차 1349대, 전기승합차(개인) 37대, 어린이 통학차량 18대를 지원해 다양한 차종에 걸쳐 보급을 확대 - 올해 신설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 3년 이상 보유한 차량에 한하고 가족 간 증여·판매는 제외되어 실질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
	<p>□ 대구시,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연중 모집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의 1포인트당 지급 단가를 기존 1원에서 1.4원으로 40% 상향 조정하고, 고물가 시대에 에너지 비용은 낮추고 현금 보너스는 챙기는 '일석이조'의 실익을 제공 - 현재 대구시 전체 110만 가구 중 약 16만 가구(약 14.6%)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총 3만 1087톤으로 이는 대구 전체 면적의 약 2%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량과 맞먹는 수준의 성과 - 오는 2월 말부터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도 시작할 예정이며, 대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이나 관할 구·군 환경부서를 통해 연중 참여 가능</p>
	<p>□ 구미시, 첨단산업·탄소중립 투트랙 산업도시 전략 추진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가 로봇·이차전지·첨단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자립·복지 기반을 확장해 성장과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2026형 도시 전략을 구체화 -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1302억원을 투입하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배출 저감,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에 나섬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2억원을 확보해 179개소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김장호 구미시장은 “첨단산업 육성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구미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
	<p>□ 인천시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콘크리트·철강 중심의 건축구조에서 친환경 건축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 - 현재 건축물 구조에서는 콘크리트·철강 등 건축물의 골조 재료에서만 건축물 탄소 배출의 약 60~70%가 발생하고 있으며, 목재는 1㎡당 약 0.8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줄이는 등의 친환경적 장점을 보유 -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탄소 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탄소 배출량 상한제 도입과 저탄소 자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등 해외 고층 목조 건축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세종시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 솔선수범 촉구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나영 세종시의원이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 이상의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감동행정의 필요성을 강조 - 축제 현장에서 경찰차와 소방차 등 공공기관 차량이 장시간 공회전하며 매연을 내뿜는 문제, 대중교통의 날에 공직자들의 실제 참여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불편과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현장의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 - 탄소중립은 선언이나 제도가 아닌 행동으로 완성되는 만큼 전자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하며, 본인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품격있는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열어 가자고 역설
	<p>□ 달서구, 탄소중립 녹색도시 전환으로 구민 91.1%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응답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달서구가 청년이 만나 가족을 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기 좋은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도심 숲과 친수 공간을 확장해 나감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완료해 수달, 반딧불이 등 다양한 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공간을 마련했으며, 도심 곳곳에 명품 가로숲길과 와룡산 해맞이 누리길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도원지 수발근린공원과 대곡지 일원 산림휴양공원 및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해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나무·물·바위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도심 곳곳에 조성해 현대 도시인들에게 위로를 건네겠다는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창원시, 2026년 탄소중립 3대 분야 2176억원 투입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시가 지난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한 이후 2018년 584만7000톤 대비 2030년까지 350만8000톤으로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건물·수송·순환경제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핵심 분야에 총 2176억원의 예산을 투입 - 건물 부문에 170억원을 투입해 공공건축물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수송 부문에 1552억원을 투입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노후차 조기 폐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연계하며, 순환경제 부문에 454억원을 투입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생활폐기물 자원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 특히 올해부터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중고 판매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전기차 전환이 더욱 촉진될 전망
	<p>□ 예천군, 상반기 전기차 152대 보급 추진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군이 관내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총 24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80대, 전기버스 2대 등 모두 18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 중 상반기에는 152대를 우선 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148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원, 전기버스 최대 9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세부 내용 확인 가능 - 특히 올해부터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군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영월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16대 추가 확대 설치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군이 고품질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현재 영월읍 지역 내 10대가 설치·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영월읍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총 1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발표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1kg당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이 제공되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 군은 주민 왕래가 잦은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설치 장소를 협의하고,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희망 설치 장소를 접수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활용 활성화와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
	<p>□ 울산 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세미나 개최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동구가 김종훈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청소년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 동구의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 - 공공 연구기관, 대학, 민간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관계자 등 기후·환경·정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결합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 동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의 연구 성과와 현장의 정책 경험을 결합해 울산 동구 탄소중립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태안발전본부 방문 탄소중립 실현 현장 점검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최근 태안화력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 수급 영향과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음 - 위원들은 가동이 중단된 1호기를 제외하고 현재 운용 중인 2~10호기 및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설비 현장을 시찰하며 임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는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 환경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 - 특히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발전본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 필요성을 공유
	<p>□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결과보고서 발간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 논의 결과를 담은 '경산시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실을 맺음 - 2025년 11월 28일 임당 유적 전시관에서 열린 시민참여단 원탁회의에는 시민단체, 교육계, 민간기업,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시민참여단 61명을 포함해 약 80명이 참여했으며, 생활·자원순환·수송·에너지·교육·녹지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수요와 실천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 진행 - 보고서에는 분리배출 인센티브 강화,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전기차 안전 대책 마련, 체험형 탄소중립 교육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으며, 올해 1월 발간된 보고서는 관련 부서와 공유해 시민 참여형 정책 제안과 교육·홍보 사업 등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창원시, 2026년 '탄소중립 실행 원년' 선포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시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시행 1년을 맞아 2026년을 '실행 원년'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나서며, 선언적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 도출에 집중 -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584만7000톤에서 350만8000톤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해 차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적 감축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난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평가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글로벌 기후시장 시장협약(GCoM)'에서 3개 분야 9개 항목 전체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해 국제적으로도 실효성을 인정받음
	<p>□ 충북·강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지방환경청이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 6개 기관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충북·강원권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 향후 협약 기관들은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부터 전력망 구축까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
	<p>□ 충남도, 수소버스 구매 시 최대 4억6000만원 지원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송업체에서 수소버스 구매 시 저상버스는 3억3000만원, 고상버스는 4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대비 저상버스는 3300만원, 고상버스는 1억1000만원이 각각 상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도가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지난해 291억6000만원보다 111억1500만원이 증가한 402억75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수소승용차 400대, 저상버스 25대, 고상버스 40대 등 총 456대를 지원하며, 수소버스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10개 교체 비용 5억5000만원도 지원 - 지난해 12월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체결한 '2030 청정 수소로(路) 이음 후속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버스 1200대 보급, 수소충전소 67기 구축을 목표로 하며, 올해 보령시를 시작으로 계룡시, 부여군, 천안시에 충전소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
	<p>□ 천안시, 탄소중립 이행점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가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 추진 역량 강화에 주력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97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과제별 목표 달성 여부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등을 점검하고 이를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 -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탄소중립 이행점검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진실적 관리 및 성과분석 방법을 교육하여 담당자들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p>□ 보령 폐광지역, '제3회 겨울방학 석탄 에너지전환 축제' 개최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보령시 성주면 폐광지역이 이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교육·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미래 가치와 연결하는 의미 있는 전환을 보여줌 - 1월 31일 보령시청소년수련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겨울방학 석탄 에너지전환 축제'는 연탄구이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재활용품으로 제작된 40여 가지의 탄소중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립 게임, 에너지전환 퀴즈, 공예 체험, 그림 그리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가족)를 구하러 가자! 히어로! 성주로!'를 주제로 폐배터리와 우유팩, 플라스틱 음료수병 등을 가져와 교환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보령석탄박물관 관람을 통해 석탄산업의 역사와 미래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
	<p>□ 제주도, 제4기 공공건축가 38명 확정...탄소중립 건축 본격 추진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4기 공공건축가 38명을 최종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이번 4기는 기존 건축·도시·조경 분야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처음 포함해 '2035 탄소중립 제주' 달성과 녹색건축 확산이라는 도정 핵심 과제에 맞춰 실효성을 높임 - 지난해 12월 말부터 진행된 공개모집에 73명의 전문가가 지원했으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축 31명, 도시 2명, 조경 2명, 에너지 3명 등 38명을 최종 선발하여 향후 2년간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비계획과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자문·조정 역할을 담당 - 에너지 전담 분과를 신설해 탄소중립 공공건축 실행모델을 만들고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확산을 위한 전문 기술 자문을 강화하며, 올해 총 12억4000만원을 투입해 용담1동 한천 보행로 개선, 오라동 생태수변공간 조성 등 도민 체감형 친환경 공간환경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
	<p>□ 여수시, 탄소중립포인트제로 기후변화 선도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지속 추진하며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 - 에너지 부문에 3억원, 자동차 부문에 2400만원 등 총 3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에너지 분야는 연중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2월에서 3월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여수시에서는 총 1만6543가구가 참여해 약 2억6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며, 3710tCO₂eq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어 이는 수령 30년 기준 나무 약 36만 그루를 조성한 효과와 동일한 수준
	<p>□ 광주시민 탄소중립 피로감 확산... '인식과 실천의 괴리' 심화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발표한 '광주시 탄소중립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광주시민 500명 대상 조사 결과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도는 79.45점으로 2년 전보다 상승했으나,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정책 동참' 의향은 71.25점으로 5.05점 하락 - 반복되는 위기 경고에 대한 피로감과 “나 하나 실천한다고 바뀌겠어?”라는 무력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천도는 13.66점 상승한 반면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도는 오히려 6.60점 하락하는 등 실천 항목별 온도차도 뚜렷하게 나타남 - 연구진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100여명이 기후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광주시민회의' 상설화, 개인·마을 단위 온실가스 감축량을 실시간 시각화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 대시보드' 구축, 미션 수행 시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는 '광주형 시민실천 챌린지' 도입 등을 제안
	<p>□ 제주도, 농업분야 RE100 감귤 전국 최초 출시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필름 형태 태양광 발전시설과 공기를 압축해 열을 내는 전기 설비인 히트펌프를 설치해 온도 조절, 환풍, 개폐 등 감귤 재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자체 조달하는 'RE100' 하우스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 RE100 감귤 출시 -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고, 남은 전기는 전기차를 폐차한 뒤 나온 사용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야간에 활용하는 구조로, 농사에 필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자체 조달하여 탄소 배출이 없는 완벽한 RE100 시스템을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분야에 재생에너지를 전면 도입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나,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설계 모델 개발과 적정 설비 규모 마련이 과제이며, 특히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비 가격의 경제성 확보가 농업 분야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관건
	<p>□ 광주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 개최 (2026.0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가 환경 단체·기관·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광주전남 통합이 지향해야 할 환경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통합 이후 더 나은 환경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 - 특별법에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가속, 영산강·무등산·상수원 공동관리로 환경과 생태가치 향상, 풍요로운 생태자원이 교육·문화·경제·관광으로 연결, 태양광·풍력 등 지역에너지 순환구조가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내용이 담김 - 전문가들은 통합 이후 광역 환경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분산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언
	<p>□ 성북구, '일회용 컵 제로' 캠페인 전개 (2026.0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선도도시 성북구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청 로비에서 '일회용 컵 제로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구민들에게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해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하자는 취지 - 캠페인은 성북구청 직원과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2주간 집중 실시되며, 탄소중립 실천 관계 부서 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해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을 제한하고 개인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일회용 컵 제로 청사 만들기' 캠페인은 향후 동주민센터와 산하 공공기관 등 30여 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성북구청은 평소에도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 방문이 잦은 청사 내 공간에 텀블러 살균 세척기를 운영하고 추가 설치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
	<p>□ 청주시, 무공해차 5158대 지원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총 5158대에 대해 5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9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해 무공해차 보급을 본격 확대 -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296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416만원, 수소승용차는 3350만원, 수소버스는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도 신설 - 청주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연계했으며, 공동명의 신청 자격을 강화해 대표자와 공동소유자 모두 청주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지원 형평성 강화에도 중점
	<p>□ 제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대응전략 워크숍 개최 (2026.0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제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ESG 및 RE100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탄소중립 정책 동향,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방지기술 운영 및 개발 동향, 기업 ESG 전략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패널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 사항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 - 제천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추진하며, ESG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고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p>
	<p>□ 충남도, 7조원 공공건축 사업으로 탄소중립 선도 (2026.0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의 공공건축 사업을 총 396건, 6조9725억원 규모로 추진하며, 품격 있는 공간조성과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이 순항 중 -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목재 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활성화로 2045 탄소중립에 기여할 계획이며,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에 나서며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도시리브투게더'에도 목구조를 적용해 목재 친화 단지로 조성 - 도는 올해 안에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 2곳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전통·현대건축 등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목재 활용을 넓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계획
	<p>□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중립 달성과 지역 역할 특강 개최 (2026.0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탈탄소 등 기후변화 핵심 정책과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KRIC 오피니언 리더 특강' 실시 -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탄소중립은 단순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 에너지, 재정, 거버넌스가 결합된 구조적 전환 과제로 지역이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분권과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최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은 “이번 오피니언 리더 특강으로 최신 기후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 기반 탄소중립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역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충북도 에너지정책팀장 기고문 - '햇빛소득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제안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의 충북도 에너지정책팀장이 기후 위기 대응과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의 새로운 경제적 혈류 공급 방안을 제시하며, 농촌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최적 대안이라고 강조 -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전국 380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을당 1MW급 발전소를 매년 500곳씩 조성해 2030년까지 총 2.5GW를 구축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충북도는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중 약 100여개가 후보지로 시·군당 연간 1~3곳 정도 추진 가능 -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농업진흥지역도 스마트팜 시설 상부나 농기계창고, 휴경지, 공유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청년 농부에게는 첨단 농업과 에너지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고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형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음
	<p>□ 오영훈 제주지사, 日 하카타항 시찰…스마트·탄소중립 항만 구축 추진 (2026.0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 100주년을 앞둔 제주항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항을 찾아 스마트 항만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친환경 설계와 대규모 크루즈 수용 능력을 확인 - 하카타항의 핵심인 친환경 설계와 대규모 크루즈 수용 능력을 벤치마킹해 '탄소중립형 항만'과 '스마트 해양 물류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며, 단순한 항만 정비를 넘어 지역 문화 인프라와의 연결도 구상 - 8400석 규모의 사가 아레나를 방문해 생활체육과 대형 공연이 공존하는 복합 시설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했으며, 제주도는 3년 뒤 맞이할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크루즈 관광의 재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터닝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기후부,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승인 평가 추진...AI로 화학안전체계 강화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살균제, 살충제, 서제, 기피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생활 화학제품 e라벨 표기 도입도 추진 -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화학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체계를 구축하며, 위해성 평가에 AI 기술을 접목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유해물질 차단을 가속화하는 한편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원격 감시 및 이상징후 조기 탐지 체계 구축 - 유통량이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에도 AI 모니터링을 도입해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해·불법 물질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올해 확보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30년까지 현장에 적용한다는 목표
	<p>☐ 하정우 청와대 AI수석 "이재명 정부, 처음부터 에너지믹스...탈원전이었던 적 없어"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4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표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처음부터 실용주의 에너지믹스 정책이었다”고 밝힘 - “에너지는 과학”이라며 “AI시대 AI데이터센터, 성장동력의 산업의 에너지 수요에 맞춰 제12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포함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이며 AI 시대 에너지 정책의 실용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방향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기본(20242040)은 현재 수립 작업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전망
	<p>□ 이재명 정부의 탈 '탈원전'...AI발 전력대란에 신규 원전 2기 건설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됐던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AI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 - 정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을 통해 국민 3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여론이 69.6%까지 나왔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9.5%에 달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대한 부담이 줄었으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도 작용 -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며, 5~6개월 간의 부지 평가·선정 과정 등을 거친 후 2030년대 초 건설허가를 획득해 원전 건설에 나서는 게 목표이고,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을 반영할 지도 관심이며 올해 상반기 내 12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예정
	<p>□ 배경훈 부총리 "SK AI 데이터센터...인허가 일괄 처리 등 적극 지원" (2026.0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가 원활히 구축되도록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입지·시설·전력·규제·특례 등 다방면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민관 협력 의지 표명 -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SK그룹과 AWS가 협력해 건설 중인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로, 2027년 상업 가동 시 100메가와트(MW) 규모로 운영돼 동북아 AI 허브로 기능할 것이 기대되며, 업계는 이 데이터센터 구축에 수조 원이 소요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 특별법을 마련해 실재적인 기업 성장을 돕겠다”며 “울산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양자 팹을 개소하고 미래형 전지 분야 강소특구 운영과 수소 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산업 AX(AI 전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함께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
지자체	<p>□ 울산시의회, 'AI수도 울산' 비전 실현 현장 점검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현조)가 남구 두왕동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위치한 AI 관련 시설인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하이테크타운을 방문해 울산시가 올해 시정 핵심 전략으로 선포한 'AI수도 울산' 비전 실현의 실제 운영 현장과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 -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로봇 기반 AI 자율제조 기술이 실제 공정에서 작동하는 시연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기술 적용 수준을 집중 점검했고, AI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판단하고 로봇이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제조 시연이 진행됨 - 이어 울산 제조 AX랩을 찾아 울산형 'AI 수도' 전략에 따른 제조 분야 AI 전환 (AX) 지원 기반 구축 현황을 살펴봤으며, AX랩은 GPU 기반 컴퓨팅 자원과 AI 솔루션 개발 공간 등을 갖춘 제조 AI 전용 거점으로 백현조 위원장은 “로봇 기반 AI 자율제조 기술이 울산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동서발전, '탄소중립 · 환경보전 공동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2026.0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동서발전이 울산 중구 본사 대강당에서 '2025년도 탄소중립 · 환경보전 공동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환경단체 · 유관 협업기관 관계자, 수상자 등 250여명이 참석 - 2020년부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해 온 지역 상생형 프로젝트로, 지난해에는 울산광역시청 · 울산시교육청 등 11개 기관과 협업해 7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울산시민과 학생 등 총 3만여명이 참여 - 올해는 자원봉사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해 '전 세대 · 전 계층이 함께하는 참여형 친환경 문화'로 확산했으며,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인 '으?으? 줍깅대회'를 운영해 장애인 140여명을 포함한 총 243명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
	<p>□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 신규 LNG 발전소, 탄소중립과 충돌 우려 (2026.0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란에서 송전망 부족과 산업용 수요 증가, 입지 · 인허가 갈등이 맞물리며 계획 중인 LNG 신규 발전소 6기(총 3GW)가 '단기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신규 발전소가 들어서는 순간 이후 수십 년의 온실가스 배출 경로가 함께 고정된다는 점에서 중장기 탄소 전략과의 충돌 우려 제기 -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결국 화석연료이며, 탄소중립 관점에서는 신규 증설보다 감축과 기존 설비의 탈탄소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업계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수소 혼소(가스에 수소를 섞어 연소)도 2032년부터 혼소율 50%를 달성해도 열량 기준 실질 감축은 20%대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소가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전략할 위험이 있으며, 2030년대 초반 상용화가 예상되는 수소 전소 터빈 전환을 정책과 시장의 중심 경로로 잡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접근이 더 타당하다고 제언
지방기관	<p>□ 경북연구원, 동해안 심해 블루카본을 국가 탄소중립 핵심 해법으로 제시 (2026.0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가 'CEO Briefing' 제747호에서 동해안 심해 블루카본을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의 새로운 돌파구로 제안하며, 산림 중심의 기존 탄소흡수원이 고령화와 국토 면적 제약으로 추가 흡수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양 생태계 기반의 블루카본에 주목 - 경북 동해안은 연안에서 불과 수십km 이내에 수심 2000m 이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울릉분지와 연결되어 해조류가 흡수한 탄소를 빠르게 심해로 이동시키는 '탄소 슈트(Carbon Chute)' 역할을 하며,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세계적 희소 공간으로 평가 - 환경 DNA·동위원소 분석으로 심해 저장 탄소의 기원을 규명하고 IPCC 신규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는 탄소 회계 체계 고도화, Digital Twin과 AI 기반 MRV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를 중심으로 포항·울진·영덕을 연계한 국가 거점 조성 등 세 가지 전략 제언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수출입은행, AI 대전환에 22조원 투입...'AX 특별프로그램' 출시 (2026.0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출입은행이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5년간 22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원을 투입하는 'AX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하며, AI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분야에 걸쳐 반도체(HBM 등), 인프라(데이터센터)에서부터 핵심언어모형(LLM) 개발, AI 솔루션·로봇·AI 팩토리 구축 등 활용 단계에 이르는 AI 산업 전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조원 한도 내에서 대기업은 최대 1.2%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4%p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고,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에 발맞춰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0.2%p를 추가, 최대 1.6%p까지 금리를 인하하며, AI칩, AI모형·솔루션 등 초기 단계 스타트업 중심 산업에는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투자 업무도 추진 - 최근 수은법 개정에 따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졌고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대출·보증 연계 의무가 폐지돼 투자 업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대기업에 공급하는 AI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도 기존 1.0%p에서 1.5%p까지 확대하고 AI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무료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 예정
	<p>□ 원자력학회 "신규 원전 추가 없이 탄소중립·AI 전력수요 대응 불가" (2026.0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장)가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분)에 폭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언 - 학회 분석에 따르면 11차 전기분상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까지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원전 20기와 SMR 12기 건설이 필요하며, 현재 국내엔 대형원전 26기가 가동하며 국내 전력수요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어 원전 비중을 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설명</p> <p>- 학회는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중장기 교두보 역할도 한다”며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2040년 이후의 전력수급 공백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2039~204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발전원별 원가 산정 기준 개편 필요성도 강조</p>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여수산단 탄소중립 협력모델 모색 토론회 개최 (2026.01.28)</p> <p>-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재도약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p> <p>- 석유화학산업이 지역 경제는 물론 자동차·반도체·기계·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 위기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 전략을 논의하며, 고부가가치 전환과 함께 에너지 구조 혁신 병행 필요성에 공감</p> <p>- 주 의원은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경쟁력은 결국 '에너지'에서 나오며 고온가스로는 대량의 열에너지를 안정적·저탄소로 공급할 수 있어 석유화학이 원가와 탄소 부담을 동시에 낮추며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하이엠솔루텍, LG시스템에어컨 폐냉매 17톤 회수...ESG 경영 강화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전자 냉난방공조(HVAC)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이 지난해 1월부터 탄소저감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전국 LG시스템에어컨 서비스 현장에서 총 17톤의 폐냉매를 회수했다고 발표 - 냉난방 설비에 사용되는 냉매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적으로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이엠솔루텍은 법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칠러 이외의 LG시스템에어컨 고객 현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해 폐냉매 회수 서비스 운영 - 지난해 회수·폐기된 폐냉매 17톤은 약 100만 그루 나무의 연간 탄소 흡수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서비스 및 유지보수 과정에 환경 관리 요소를 반영한 냉난방공조 유지보수 토탈 서비스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
	<p>□ 삼성중공업·아모지·빈센, 암모니아-수소연료전지 무탄소 동력 시스템 공동개발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중공업과 글로벌 암모니아 솔루션 기업 아모지(Amogy), 수소 연료전지 전문 기업 빈센(Vinssen)이 손잡고 해상 탄소중립의 게임 체인저가 될 '암모니아-수소연료전지 기반 무탄소 동력 시스템' 개발에 나서며,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할 차세대 선박용 동력원 개발 목표 - 암모니아 크래커와 수소 연료전지(PEMFC)를 결합한 'Ammonia-to-Power' 기반 파워팩(Powerpack)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JDP)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존 디젤 발전기를 대체해 암모니아 크래커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 - 연소 과정 없이 전력을 생산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공법으로, 고출력을 확보하면서도 제품 크기를 기존 선박용 엔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계해 기존 선박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100% 무탄소 추진 선박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전남개발공사-한전KPS,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협약 체결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개발공사와 한전KPS가 나주에 위치한 한전KPS 본사 창조홀에서 정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출발점 마련 - 풍력발전,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과 함께 풍력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비 Shop 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및 연구 개발 공동 참여 등에 협력하기로 하며, 기술 협력과 함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도 힘을 모으기로 함 - 전남개발공사는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KPS는 전력 발전설비 정비, O&M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어 양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 기대
	<p>□ 현대자동차, UCL과 탄소중립 원천기술 공동 연구 착수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과 고속 충전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그린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한 첫 번째 성과 - 전기차 충전 시간 단축과 안전성 향상을 통한 보급 가속화, 고출력·고내구성 수소연료전지 기술 확보, 차세대 전해조를 활용한 저비용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며, UCL 전기화학혁신연구소(EIL)와 첨단추진연구소(APL)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주립대(SSU)에 500만 달러(약 71억원)를 기부하고 '현대교육대학(Hyundai College of Education)' 설립을 확정했으며, 이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에서 '교육-연구-생산'을 잇는 현지 인재 육성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HD건설기계, CDP 기후변화 대응 'A등급' 획득...2050 탄소중립 추진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건설기계가 지난해 12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부문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으며, A등급을 받은 국내 기업은 지난해 기준 40여개에 그쳐 국내 건설기계 업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인 - 2023년 건설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RE100에 가입했고, 브라질 사업장은 2024년 RE100에 도달했으며, 국내 사업장에서는 인천(1MW급), 울산(3.9MW급), 음성(1.3MW급) 등 태양광발전 설비를 확산해 연간 1만1980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5500톤의 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 - 2040년까지 친환경제품 비중을 92%로 늘리기 위해 전동화 및 연비 개선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소연소엔진 'HX12'는 올해 말 양산이 목표이고 2027년 수소엔진 트럭, 2029년 수소엔진 발전기, 2030년 수소엔진 굴착기 등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
	<p>□ 푸드리스트, 스타필드시티 부천시 '잔반제로' 탄소중립 모델 운영 (2026.0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리스트가 부천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해 시민 생활 전반에서 탄소 저감 실천 확산에 나서며,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구내식당에 '더제로(The Zero)' 스마트 잔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 - 퇴식구에 설치된 잔반측정기를 통해 발생 잔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절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며, 이용 고객은 '더제로' 전용 모바일 앱에 가입하면 개인별 잔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는 부천시 정책 성과 관리에 활용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연계해 잔반량이 60g 미만이면 1회당 10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급식소 잔반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 인천 탄소중립 마을 너머 협동조합, 우유팩·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실험 (2026.0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마을 너머 사회적협동조합이 2024년 인천녹색연합과 함께 우유팩·멸균팩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리빙랩 사업을 시작하며,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우유팩과 멸균팩이 대부분 일반 종이와 뒤섞여 버려져 국내 재활용 비율이 20%도 되지 않는 문제 해결에 나섬 - '종이팩 재활용 기획단'이 인천 계양구 계양3동 주민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우유팩·멸균팩 재활용 비율이 늘어날지 논의했고,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유가보상제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커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파악해 지역 카페, 학교, 아파트, 도서관, 경로당 등에 재활용 수거 거점을 설치 - 5개월 동안 우유팩·멸균팩 5500장이 모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그해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가 1년 동안 모은 우유팩보다도 많은 양으로, 거점을 늘리고 수거 시간을 확대한 것만으로도 수거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음을 입증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아마존, AI로 효율화·부진사업정리로 1만6000명 감원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이 AI 도입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실적 부진 사업 정리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1만 6000명의 기업 부문 감원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3만명에 달하는 감원 계획의 2차 실행으로 아마존 창립 30년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의 최고 인사 책임자인 베스 갈레티는 “조직 계층을 줄이고, 책임감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아마존의 CEO인 앤디 재시는 지난 여름 AI 도구의 사용 증가가 업무 자동화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 이번 감원은 AI가 기업 인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AI 비서의 발전으로 기업들은 일상적 관리 업무부터 복잡한 코딩까지 다양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고,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UPS, 핀터레스트 및 ASML이 최근 직원 감축을 발표
	<p>□ 당근, AI로 중고 화장품·수제 두썬쿠 거래금지 품목 판매 단속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근이 개인이 만든 두바이썬득쿠키(두썬쿠), 중고·샘플 화장품 등 거래금지 품목 판매를 인공지능(AI)으로 잡아내기 위해 운영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을 자동으로 신고해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자동 신고 AI 에이전트를 이달 초에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금지 품목 판매 행위 단속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중고·샘플 화장품은 화장품법,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직접 제조한 식품 판매는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되어 AI를 통한 자동화 단속 시스템 구축 - 당근 관계자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아도 AI가 자동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는 자동 신고 AI 에이전트를 통해 정책 위반 게시글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방대한 문제 게시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p>□ SK하이닉스, MS AI칩 '마이아 200'에 HBM 단독 공급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마이아 200'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의 3나노(nm)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한 마이아200에는 총 216GB HBM3E가 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용되고 SK하이닉스의 12단 HBM3E가 6개 탑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주문형 반도체(ASIC) 기반의 자체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구글, 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으로도 HBM 수요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 싸움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며, MS는 이 칩을 미국 아이오와주 데이터센터에 이미 설치하고 애리조나주 데이터센터에도 추가 예정 - HBM3E에 이어 차세대 제품인 HBM4(6세대)에서도 양사 간 각축전이 예상되며,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 AMD가 진행한 HBM4 관련 최종 퀄(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다음 달 업계 최초로 정식 납품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 이미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대량의 유상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 중
	<p>□ MS, 자체 AI 칩 '마이야 200' 공개...엔비디아 의존도 낮출까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추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AI 가속기 '마이야 200(Maia 200)'을 공개했으며, TSMC의 3나노미터(nm) 공정을 기반으로 고성능 AI 추론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초당 7테라바이트(TB) 대역폭의 216GB HBM3e 메모리 시스템과 네이티브 FP8/FP4 텐서 코어, 데이터 이동 엔진을 결합 - 실제 연산 성능에서 4비트 정밀도(FP4) 기준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자체 AI 칩인 아마존 트레이니움(3세대) 대비 3배 높은 처리량을 기록했고, 8비트 정밀도(FP8)에서도 구글의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를 웃돌았으며,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업계 최고의 추론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이 제품은 현존 시스템 대비 달러당 성능이 30% 높다”고 설명 - 마이야 200은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5.2를 비롯한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며 미국 아이오와주의 MS 데이터센터에 이미 설치됐고, 업계는 마이야 200이 사실상 MS의 첫 상용화 칩이라고 평가하며 MS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의존을 낮추려 할 것으로 전망
	<p>□ CJ프레시웨이, 식자재 플랫폼 'AI 주문 에이전트' 도입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주문 플랫폼 '프레시엔(Fresh&)'에 거대언어모델(LLM) 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주문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이 기능은 고객이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도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주문 지원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어제 주문한 상품 그대로 담아줘“, “쌀 20kg, 우유 1L 2개 주문“ 등 일상적인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주문 의도를 분석해 구매 이력과 상품 정보를 참조하고 규격과 수량을 자동으로 매칭해 장바구니에 담아 기존의 번거로운 검색과 선택 과정을 대폭 줄임 - CJ프레시웨이는 향후에는 24시간 자동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문의(CS)에 대한 대응 효율을 높이는 등 플랫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며,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DT) 전략의 일환으로 최신 기술 기반 고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차별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민간기업	<p>□ 손정의, 오픈AI에 "43조 더"...100조 베팅 나서나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정의(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300억달러(약 43조원)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가 지금까지 오픈AI에 쏟아부은 누적 투자액은 400억달러(57조원)가 넘어 추가투자 시 누적 100조원을 투입하는 규모 - 이 같은 논의는 오픈AI가 올해 1분기 완료를 목표로 10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자금 조달이 성공할 경우 오픈AI의 기업가치는 8300억달러에 달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미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와 맞먹는 수준으로 전망 - 추가 투자 계획은 AI 발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차지하려는 손 회장의 야심이 투영된 행보로 풀이되며, 손 회장은 지난해 'AI 올인'을 선언하고 오픈AI 외에도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페어컴퓨팅과 ABB 로봇 사업부를 잇달아 인수했으나, S&P글로벌레이팅스는 “소프트뱅크의 AI 투자 확대와 지난해 말 Arm 주가 급락이 겹치면서 신용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 시총 100조 시대…피지컬 AI 기대감에 몸값 '고공행진' (2026.0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며 시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기 직전인 1월 2일 시가총액 61조1200억원 대비 약 70.9% 증가한 104조4265억원을 기록 - 지난 21일에는 장중 55만10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당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12조원으로 기업 가치가 제너럴 모터스(GM)과 BYD를 모두 넘어섰으며, 현대차는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구글의 AI '제미니'와의 협력 계획을 밝히며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 현대차는 그동안 피지컬 AI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와 글로벌 협업을 확대해왔으며, 산업용 로봇, 물류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 등에서 기술 고도화를 추진했고, 증권가에서는 현대차를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분류
	<p>□ 데이원컴퍼니-업스테이지, AI 특화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2026.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원컴퍼니가 업스테이지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양사는 사업 전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교육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 - 데이원컴퍼니는 참여 기업의 인력 수요 기반 직무 분석,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수료생 대상 장학금 수여 및 인턴 채용 연계 지원,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교육과 취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 예정 - 업스테이지는 훈련생들이 현장 수준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픽 처리장치(GPU) 지원, 훈련 성과 관리 및 평가 체제 수립·운영, 학습용 데이터셋 지원, 기술 자문 및 멘토링 등 있음
대학교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지구 종말 시계' 자정 85초 전..."핵 위협에 AI 확산 겹쳐" (2026.0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핵과학자회(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 BSA)가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의 시간을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겼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자정 89초 전)보다 4초 더 가까워진 것으로 시계가 도입된 1947년 이후 가장 자정에 근접한 기록 - 핵과학자회는 이번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핵무기 사용 위험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지목했으며, 과학·안보위원회 의장인 대니얼 홀츠 시카고대 교수는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AI 도구 사용이 급증하며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힘 - 홀츠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국제사회가 핵위협,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재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오랜 시간 구축해온 국제적 합의 체계가 붕괴되고, 강대국 간 승자독식식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p>□ 이제는 전문직도? 회계사·변호사도 신입 대신 AI 쓴다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라인의 단순·반복 작업 일자리뿐 아니라 회계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일자리도 AI에 위협받는 게 현실이 됐으며, 직원 70명 규모의 회계법인에서는 신입 회계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저연차 회계사가 맡던 기초 자료 조사는 이미 AI가 전담 -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1천 200명 가운데 70% 넘는 인원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회계법인에 채용되지 못했으며, 합격자 80~90%가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갔던 수년 전과 비교하면 순식간에 기류가 바뀌었고, 법률 시장도 판례 검색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 작업에 AI를 활용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 - 도제식 교육이 보편적인 전문직에서 이런 흐름은 초년생의 기회를 아예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며,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들어와서 숙련하면서 회사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경로는 없어질 수 있어요. 교육 과정과 직업 훈련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라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막내는 어디로 갔나...인공지능이 끊어버린 '취업 사다리' (2026.0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의 화려한 성장 뒤에서 영상·미디어 분야를 꿈꾸는 청년들의 '고용 사다리'가 조용히 끊어지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채용이 줄어든 가운데 생성형 AI가 단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신입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편집실 막내 채용 공고가 자취를 감춤 -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 경제 연구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논문에서 AI 도입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집단으로 대졸 신입 사원을 지목했으며,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에서 대졸 신입(2216%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표준 현장실습' 참여 기업 수는 1년 새 1960곳(7.0%) 감소 - 조은하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는 “영상 창작자들의 무력감은 개인의 적응 실패가 아니라 변화에 따른 비용을 사회가 청년 개인에게 온전히 전가한 결과”라며 “신입이 들어와 숙련공으로 성장하는 사다리가 끊긴다면 결국 K-콘텐츠는 다양성을 잃고, AI가 만들어낸 획일적이고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
	<p>□ 물가 폭탄·AI 공포에 美 Z세대도 '무지출 챌린지' (2026.0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2022년 유행했던 '무지출 챌린지' 열풍이 새해를 맞은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 Z세대를 중심으로 '1월 한달 쇼핑 금지(No Buy January)' 열풍이 확산 중이고, 지난해 12월 구글에서 해당 검색량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 - 미 온라인 금융 플랫폼 너드월렛(NerdWallet)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분의 1이 무지출 챌린지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고, 12%가 올 1월 무지출에 참여했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과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불안감이 무지출 챌린지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많은 미국인들이 5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물가 부담, 고용 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식비, 임대료, 의료비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고정 지출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